

평양호소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발전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운영위원회 모임

2015년 10월 23-30일, 북한, 평양

“공의, 믿음, 사랑과 평화를 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발전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EFK)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초청 인사들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주선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그련)의 초청으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방문 일정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모임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EFK 방문은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광복을 맞은 70년이 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인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분단 70년을 맞는 해에 성사되었다.

EFK 운영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에큐메니칼 교회들의 실천을 위한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10월 28일 모임을 개최했다. 이 모임에는 WCC, 조그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와 영국, 미국, 독일과 캐나다의 교회들과 관련 기구들이 참가하였다.

방문을 포함한 이번 운영회의는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들, 특히 WCC가 남북교회들과 함께 해 왔던 긴 역사의 궤적을 함께 하면서 에큐메니칼 정책과 입장들, 특별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WCC 10차 총회 성명 (2013년 11월 8일 채택)과 한반도 정의, 평화, 화해를 위한 국제협의회 (2014년 6월 17-19일, 스위스 보세이) 성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번 모임은 한반도에서 개최된 최초의 EFK 모임이며 아울러 남북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이 남북의 평화와 화해에 초점을 맞춘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EFK 위원들은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뿐 만 아니라 최근 더욱 강화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기 넘치며 자립적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북한 사회의 괄목한 만한 발전상을 목격하였다.

금번 EFK의 북한 방문의 목적은, 한반도의 현실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 분단의 비극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화해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남북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이들과 굳건한 국제적 에큐메니칼 연대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올 8월 남북의 견잡을 수 없는 긴장 관계는 북한의 제안으로 대화가 성사됨으로써 긴장완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방문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여 남북 정부가 기울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북한을 겨냥한 정치적 대결과 위협은 대화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결실들을 무로 돌리고 가장 대화가

필요한 시기에 대화의 문을 막아 버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8 월 WCC 총무가 말한 것처럼, “도발은 평화로 가는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우리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헌법 9 조에 대한 재해석과 집단자위권에 근거한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안보법안 개정에 주목한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명백하게 인용하였다. 이는 평화 헌법 9 조에 대한 재해석이 이 지역의 잠재된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평양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우리는 모든 교회와 관련 기구들,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진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이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연대하고 지지하며 행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

-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온전히 이행할 것.
- 한반도 부근에서 북한을 겨냥해서 벌어지는 모든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도발적인 무력 시위, 정치적 대결과 위협 등 한반도의 긴장을 증대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타격을 줄 뿐,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북경제제재를 해할 것.
- 인권 문제의 대립적 오용을 반대하고, 대북 전단지 살포와 북에 대한 적대화 작업을 중단하며 화해와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 평화와 화해를 통하여 인권실현을 모색해 나갈 것.
- 1953년에 맺어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할 것.
-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공존, 화해와 통일을 목표로 삼고 존중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
- 남과 북의 교회들, 그리고 세계 신앙공동체들과 북한 기독교인들 간의 상호 교류와 만남을 장려하고 특별히 남북을 포함한 세계 청년들간의 상호 교류와 방문을 증진할 것.
- 남한 내 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 신앙인들과 함께 교회협과 조그런 양 교회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에베소서 2:14)